



시나가와를 경유해 각지로 실려 나갔습니다.

시나가와에 내항하는 배에는 조세가

부과되었고, 그 조세는 엔가쿠지

절(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) 및 가나자와

쇼묘지 절(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)의 건물

정비에 충당되었습니다. 14세기에 들어서자,

시나가와에서는 구마노 지방(지금의

와카야마현 남부와 미에현 남부) 출신의 해운

상인인 스즈키 도인 및 에노모토 도린 등이

활약했습니다.

시나가와의 도시와 절·신사

이 무렵의 시나가와의 도시는 메구로가와

강을 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.

가마쿠라 막부의 보호 아래 무사와 상인을

신자로 하는 절·신사가 줄지어 들어섰고,

종교인, 상인, 직공, 어업·해운 관련 종사자

등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거주했습니다.



▲시나가와의 절·신사 위치 추정도

불교의 종파는 선종·정토종·시종(時宗)·일련종(日蓮宗) 등 당시 새로 성립된 종파의 사원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. 가마쿠라의 사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세이토쿠지·가이안지, 가이조지·혼코지·묘코쿠지(지금의 덴묘코쿠지)·간교지 등의 사원이 큰 역할을

담당했습니다. 사원에는 토지 기증이 줄어들어, 묘코쿠지처럼 광대한 부지와 건물을 가진 대사원도 있었습니다.

또한 기타시나가와에 있는 고텐야마는 내세의 행복을 빌며 공양을 올리거나 장례를 지내던 신성한 장소였습니다.